

# 2016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6년 2분기 전망

I. '16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	1
II. '16년 2분기 수출 전망 .....	10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	16

확인 : 산업경제팀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mailto: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mailto:yzkim@koreaexim.go.kr)

조 사 역 유형준 (6255-5709)

[yhj0603@koreaexim.go.kr](mailto:yhj0603@koreaexim.go.kr)

## < 요 약 >

### I. '16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 □ 1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13.3% 하락·수출물가 하향세 지속

-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3% 하락한 1,156억 달러 기록
- 유가하락 지속으로 관련 품목 수출 부진은 이어지고 있으나, 3월 중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하락세는 다소 진정
- 수출물량은 1월 부진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월 이후 회복, 수출물가는 하향세 지속

- 수출물량지수는 2월 이후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돼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1% 하락

※ 수출물량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1.3('15.12월)→△7.4('16.1월)→4.7(2월)→3.2(3월)

- 수출물가지수(달러화기준)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의 하락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전기에 비해서도 3.6% 하락

####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분기대비 5p 하락한 85 기록

- 1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수출단가 평가지수(97)보다 생산원가 평가지수(103)가 상회해 전기(94)보다 하락한 93 기록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89	99	95	94	96	94	94	95	90	93	94	90	85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6	98	94	93	96	88	90	98	90	94	98	94	93
수출단가 평가지수		94	97	94	93	97	85	90	98	91	97	100	93	97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4	102	102	107	102	101	102	99	103	103	97	103
수출물량 평가지수		91	105	100	102	95	104	98	97	90	96	94	91	85
수출계약 평가지수		91	105	101	102	96	103	97	96	89	96	93	90	84
자금사정 평가지수		98	102	100	99	100	97	93	98	93	96	95	97	95

- 산업별로는 조선(78), 철강(78)의 업황 하락폭이 큰 가운데 자동차, 플랜트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 평가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동일, 중소기업은 7p 하락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산업	석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플랜트· 해외건설	대기업	중소 기업
'15년 4분기	97	82	89	88	95	89	94	89	91
'16년 1분기	93	78	85	86	86	78	83	89	84

-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 수요 감소(79.6%)와 업체간 수출경쟁 심화(21.6%)을 가장 많이 선택

## II. '16년 2분기 수출 전망

### □ 2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4.3% 하락

- '16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기대비 3.8% 하락,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4.3% 하락 기록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9.6('15.2/4) → △8.5(3/4) → △7.7(4/4) → △6.1('16.1/4) → △4.3(2/4)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 △5.6('15.2/4) → 1.1(3/4) → 2.2(4/4) → △3.7('16.1/4) → △3.8(2/4)

###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및 수출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 부진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유로존은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브라질은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만 아직 회복력이 높지 않은 상황

- 수출 둔화 및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9.8%, 전기대비 21.3% 하락

※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지수 (2010=100)

: 85.51('15. 1/4)→ 90.46(2/4)→ 86.52(3/4)→ 76.15(4/4)→ 59.97('16.1/4)

- **가격경쟁력** : 1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해 가격경쟁력은 상승

※ 원/달러환율(평균) : 1,098.7('15.2/4)→ 1,179.3(3/4)→ 1,157.1(4/4)→ 1,200.9('16.1/4)

※ 원화 실질실효환율 : 112.9('15.2/4)→ 108.1(3/4)→ 110.3(4/4)→ 106.8('16.1/4)

- **수출물가** : 유가 안정으로 인한 석유 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출 물가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가격 하락세도 지속

※ 수출물가지수 전월대비 등락률(% , 달러기준)

: △1.6('15.12월)→ △2.1('16.1월) → △0.5(2월) → 0.9(3월)

- **주요 산업** : 선박, 석유제품, 석유화학의 수출 감소세는 이어지겠으나, 반도체와 자동차는 감소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이며, 무선통신기기는 신제품 수출 증가로 증가세 지속 전망

#### □ '16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 내외 하락 전망

- 2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대비 4.3%로 하락하는 등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경기 상승력이 미약해, 전분기 수준과 유사한 전년동기대비 11% 내외 하락 전망
- 다만, 수출선행지수의 전년동기대비 하락률이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진정됨에 따라 전분기(전년동기대비 13.4%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

####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24.4	126.4	126.2	127.9	121.1	114.3	115.5	118.1	113.7	109.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1%	4.6%	4.8%	2.3%	-2.7%	-9.6%	-8.5%	-7.7%	-6.1%	<b>-4.3%</b>
전기대비 증감률(%)	-0.5%	1.6%	-0.1%	1.3%	-5.4%	-5.6%	1.1%	2.2%	-3.7%	<b>-3.8%</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3.9%	-2.5%	0.1%	-2.5%	-5.0%	-6.9%	1.1%	0.8%	1.6%	<b>1.8%</b>

주 : 2015년 2분기 이후 수출선행지수 산출 모형 변경, 수출선행지수는 신규수치 산출 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1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50.6%),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41.3%) 및 원화환율 불안정(37.5%)이 꼽힘.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및 원화환율 불안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각각 51.6%, 40.3%)이 대기업(48.1%, 30.8%)보다 많이 응답
    - 반면,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에 대해서는 대기업(45.9%)이 중소기업(39.4%)에 비해 더 많이 응답
  - 산업별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선박(60.0%), 전기전자(60.0%)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 불안정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49.4%), 철강 및 비철금속(41.5%), 기계류(37.9%) 등에서 높음.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둔화는 플랜트·해외건설(54.3%), 선박(53.3%) 등의 산업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 '16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 1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13.3% 하락·수출물가 하향세 지속

○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3% 하락한 1,156억 달러 기록

- 1월(19.0%↓), 2월(13.0%↓)의 수출 부진 심화로 '15년 4분기(12.0%↓)에 비해 수출 하락폭은 확대됐으나, 3월(8.1%↓) 수출액이 다소 회복되면서 감소율 완화

○ 유가하락 지속으로 관련 품목 수출 부진은 이어지고 있으나, 3월 이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하락세는 다소 진정

※ 유가(WTI, \$/bl) 추이(기간평균) :

48.5 ('15.1/4)→ 57.8 (2/4)→ 46.5 (3/4) → 42.0 (4/4) → 33.4 ('16. 1/4)

###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액	1,375	1,457	1,418	1,477	1,334	1,351	1,282	1,300	1,156
증가율(%)	1.6	3.2	3.6	0.9	-3.0	-7.3	-9.5	-12.0	-13.3
수출물가지수	98.1	98.0	98.1	93.1	87.9	88.3	84.5	81.2	78.2
증가율(%)	-1.9	-0.4	-0.6	-5.7	-10.4	-9.9	-13.9	-12.8	-11.0
수입물가지수	107.8	107.8	106.0	95.8	85.8	85.7	80.4	77.1	72.9
증가율(%)	-2.7	0.8	-1.6	-11.5	-20.4	-20.5	-24.2	-19.5	-15.0
수출물량지수	125.9	131.3	129.5	139.3	129.4	135.1	134.9	140.0	129.3
증가율(%)	4.5	3.1	4.4	5.3	2.8	2.9	4.2	0.5	-0.1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주1: 수출액은 억달러,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2010=100)

- 지역별로는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은 증가세 유지, 저유가 및 자원 수출국 경기 둔화로 對CIS·중동·중남미 등의 수출 부진은 지속, 무선통신기기 호조로 인도 수출 증가

※ 對중 수출증가율(%) :  $\Delta 6.9(11월) \rightarrow \Delta 16.5(12월) \rightarrow \Delta 21.5(1월) \rightarrow \Delta 12.9(2월) \rightarrow \Delta 12.2(3월)$   
 ※ 對미 수출증가율(%) :  $\Delta 12.5(11월) \rightarrow \Delta 5.7(12월) \rightarrow \Delta 9.4(1월) \rightarrow 4.1(2월) \rightarrow \Delta 3.8(3월)$   
 ※ 對일 수출증가율(%) :  $\Delta 19.1(11월) \rightarrow \Delta 13.9(12월) \rightarrow \Delta 19.7(1월) \rightarrow \Delta 15.0(2월) \rightarrow \Delta 3.6(3월)$   
 ※ 對베트남 수출증가율(%) :  $12.1(11월) \rightarrow 4.9(12월) \rightarrow \Delta 8.3(1월) \rightarrow 17.9(2월) \rightarrow 13.5(3월)$   
 ※ 對인도 수출증가율(%) :  $\Delta 5.7(11월) \rightarrow \Delta 9.9(12월) \rightarrow \Delta 11.9(1월) \rightarrow 0.2(2월) \rightarrow 11.7(3월)$

- 품목별로는 유가 관련 품목인 석유제품·석유화학과 공급과잉인 선박의 감소세는 지속됐으나, 무선통신기기·철강은 수출 증가세 전환, 반도체는 수출 감소폭 축소

※ 석유화학 수출증가율(%) :  $\Delta 25.4(11월) \rightarrow \Delta 17.8(12월) \rightarrow \Delta 19.7(1월) \rightarrow \Delta 7.9(2월) \rightarrow \Delta 9.0(3월)$   
 ※ 선박 수출증가율(%) :  $129.8(11월) \rightarrow \Delta 32.6(12월) \rightarrow \Delta 33.5(1월) \rightarrow \Delta 46.3(2월) \rightarrow \Delta 28.9(3월)$   
 ※ 반도체 수출증가율(%) :  $\Delta 10.0(11월) \rightarrow \Delta 17.5(12월) \rightarrow \Delta 13.9(1월) \rightarrow \Delta 12.8(2월) \rightarrow \Delta 1.5(3월)$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 :  $23.5(11월) \rightarrow 10.1(12월) \rightarrow \Delta 5.7(1월) \rightarrow 8.1(2월) \rightarrow 19.9(3월)$   
 ※ 철강 수출증가율(%) :  $\Delta 26.8(11월) \rightarrow \Delta 23.4(12월) \rightarrow \Delta 22.2(1월) \rightarrow \Delta 4.5(2월) \rightarrow 14.7(3월)$

- 수출물량은 1월 부진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월 이후 회복, 수출물가는 하향세 지속

- 수출물량지수는 2월 이후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돼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1% 하락

※ 수출물량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Delta 1.3(15.12월) \rightarrow \Delta 7.4(16.1월) \rightarrow 4.7(2월) \rightarrow 3.2(3월)$

- 수출물가지수(달러화기준)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의 하락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전기에 비해서도 3.6% 하락

- 원자재·중간재 수입물가 하락 지속으로 수출채산성 소폭 개선

-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는 전년동기대비 27% 하락, 전분기와는 동일했지만,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는 전년동기대비 7.1%, 전분기대비 1.8%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더 커 수출채산성 소폭 개선

- ※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 : 83.8('15.2/4)→85.4(3/4)→81.3(4/4)→81.3('16.1/4)
- ※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81.4('15.2/4)→81.3(3/4)→77.2(4/4)→75.8('16.1/4)

- 특히 원자재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8.3% 하락한 54.0, 중간재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6% 하락한 79.3으로 수출용 수입물가의 하향세 지속

- ※ 원자재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75.2('15.2/4)→69.4(3/4)→61.5(4/4)→54.0('16.1/4)
- ※ 중간재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80.6('15.2/4)→81.9(3/4)→78.9(4/4)→79.3('16.1/4)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분기대비 5p 하락한 85 기록

○ 1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수출단가 평가지수(97)보다 생산원가 평가지수(103)가 상회해 전기(94)보다 하락한 93 기록

- 수출단가 평가지수(93 → 97, 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의 전분기 대비 상승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원/달러환율(평균) : 1,098.7('15.2/4)→ 1,179.3(3/4)→ 1,157.1(4/4)→ 1,200.9('16.1/4)

- 생산원가 평가지수도 원/달러 환율 상승 및 1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한 유가 영향으로 전기(97)대비 상승한 103을 기록

※ 유가(두바이, \$/bl) 추이(기간평균) :

34.9 ('15.12)→ 26.9 ('16.1)→ 28.9 (2) → 35.2 (3) → 38.1 (4.25까지)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89	99	95	94	96	94	94	95	90	93	94	90	85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6	98	94	93	96	88	90	98	90	94	98	94	93
수출단가 평가지수	94	97	94	93	97	85	90	98	91	97	100	93	97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4	102	102	107	102	101	102	99	103	103	97	103
수출물량 평가지수	91	105	100	102	95	104	98	97	90	96	94	91	85
수출계약 평가지수	91	105	101	102	96	103	97	96	89	96	93	90	84
자금사정 평가지수	98	102	100	99	100	97	93	98	93	96	95	97	95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1)보다 하락한 85를 기록, 수출 물량 하락세 지속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90)보다 악화된 84를 기록하여 수출 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 수가 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출실적 회복 난망
- 또한, 자금사정 평가지수(97 → 95)도 2p 하락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사정도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가 8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양상을 보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개선 둔화 장기화 우려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수출업황, 수출채산성, 수출물량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규모	대 기 업	89	89	93	99	93	86
	중 소 기 업	91	84	94	90	90	84
산업	석 유 화 학	97	93	96	96	96	93
	철강·비철금속	82	78	85	83	86	77
	전 기 전 자	89	85	89	94	89	85
	기 계 류	88	86	97	95	90	84
	자 동 차	95	86	98	92	96	86
	선 박	89	78	94	90	91	77
	섬 유 류	102	91	100	94	98	92
	플랜트·해외건설	94	83	101	94	106	89
수출지역	미 국 ( 북 미 )	89	90	95	100	91	88
	중 국	92	93	95	94	93	88
	일 본	92	79	94	90	91	82
	유 로 존	91	75	89	87	86	77
	동 남 아	92	82	95	88	91	86
	중 남 미	85	82	92	86	104	91

- 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대기업 전기대비 동일, 중소기업 7p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93 → 99) 전기대비 상승, 중소기업(94 → 90) 전기대비 하락
  - 한편,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93 → 86), 중소기업(90 → 84) 모두 전기대비 하락
  
- 산업별로는 조선(78), 철강(78)의 업황 하락폭이 큰 가운데 자동차, 플랜트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 평가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플랜트·해외건설(101 → 94), 석유류(100 → 94), 자동차(98 → 92)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하며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기전자(89 → 94)에서는 상승해, 이 부문 채산성은 소폭 상승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플랜트·해외건설(106 → 89), 선박(91 → 77), 자동차(96 → 86)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
  
- 수출지역별 업황 평가지수는 미국, 중국에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했고, 유로존(91 → 75), 일본(92 → 79), 동남아(92 → 82) 등은 하락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미국(95 → 100)에서 증가하였으나, 동남아(95 → 88), 중남미(92 → 86), 일본(94 → 90)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중남미(104 → 91), 일본(91 → 82), 유로존(86 → 77) 등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감소세를 나타냄.

### 3. 수출업황 개선 및 악화 원인

□ 1분기 중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8%,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35.8%로 악화 우세

○ 전기(개선 10.4%, 악화 28.0%)에 비해 수출업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더 크게 증가

- 응답 기업 중 53.4%는 수출업황이 '15년 4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하였으며, 전기(61.6%)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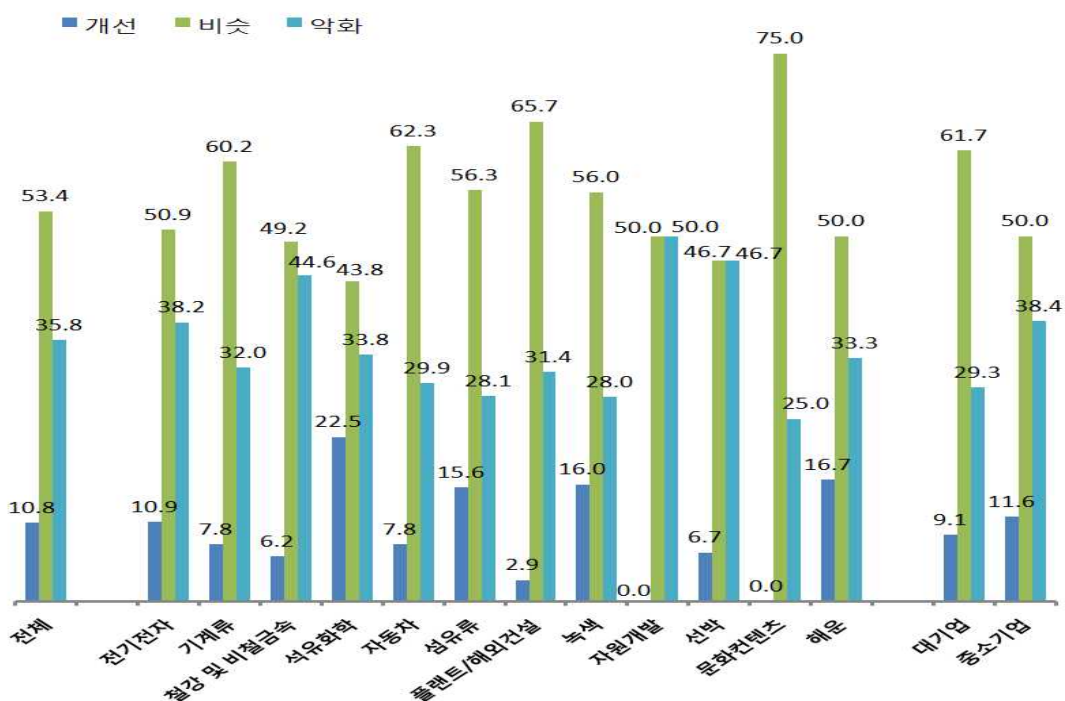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9.3%)보다 중소기업에서 업황이 악화된 기업 비중(38.4%)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전기대비 업황 악화 증가 비율도 중소기업(28.4% → 38.4%)이 대기업(27.3% → 29.3%)보다 높음.

○ 산업별로 보면 선박(46.7%), 철강·비철금속(44.6%), 전기전자(38.2%), 석유화학(33.8%) 산업에서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분기 수출기업 업황 개선 및 악화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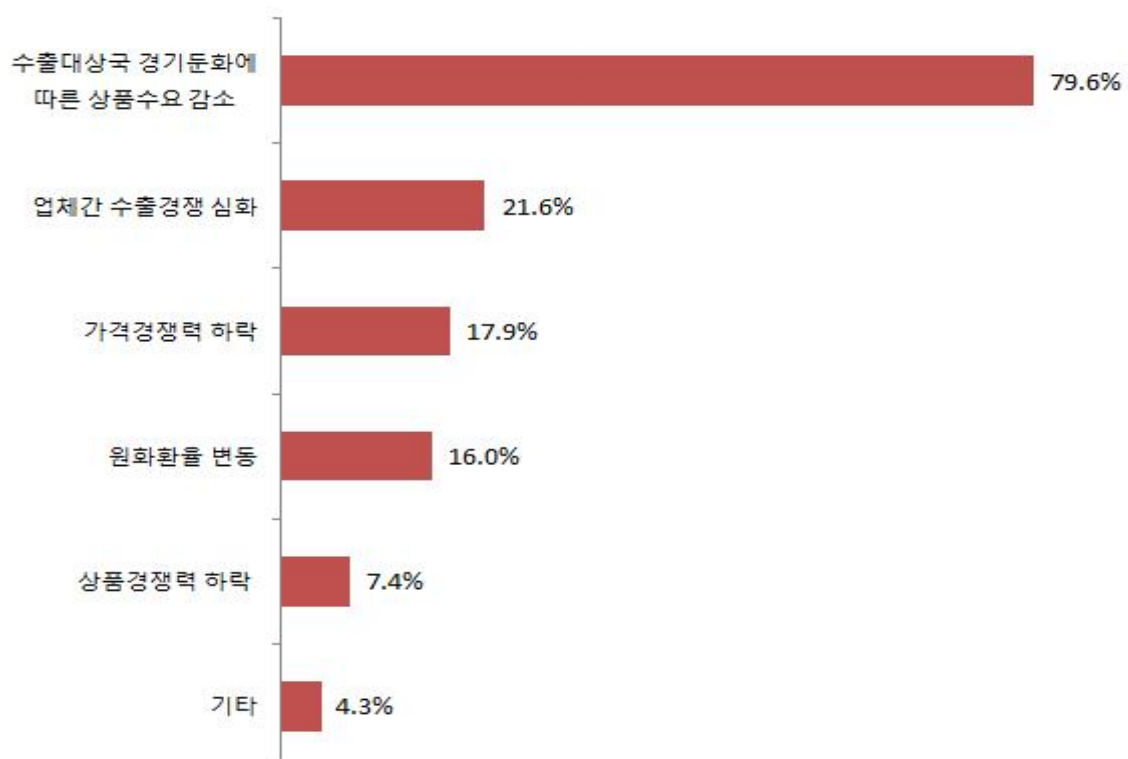
(총 기업 수 453, 단위 : %)



-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들은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79.6%)와 업체간 수출경쟁 심화(21.6%)를 가장 많이 선택(복수응답)
- 최근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기업 가운데 78.6%의 기업이 업황 악화의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를 응답
  - 미국, 일본, 유로존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도 그 비중을 각각 83.3%, 81.3%, 73.1%로 높게 응답
- 업체간 수출경쟁 심화를 수출업황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에서는 28.2%인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19.5%로 나타나, 대기업이 최근 업체간 수출경쟁 압박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최근 해외 시장 수요 부진으로 인한 글로벌 업체와의 수출경쟁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6년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업황 악화 기업 수 162, 복수 응답, 단위 : %)



- 산업별로는 선박(100.0%), 석유화학(88.9%), 전기전자(85.7%) 등의 산업에서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
- 업체간 수출경쟁 심화를 수출업황 악화의 주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산업은 섬유류(55.6%), 플랜트·해외건설(27.3%), 자동차(26.1%), 철강·비철금속(24.1%) 등임.
- 지역별로는 중동(38.5%), 유로존(26.9%) 수출기업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업규모, 산업, 수출지역별 2016년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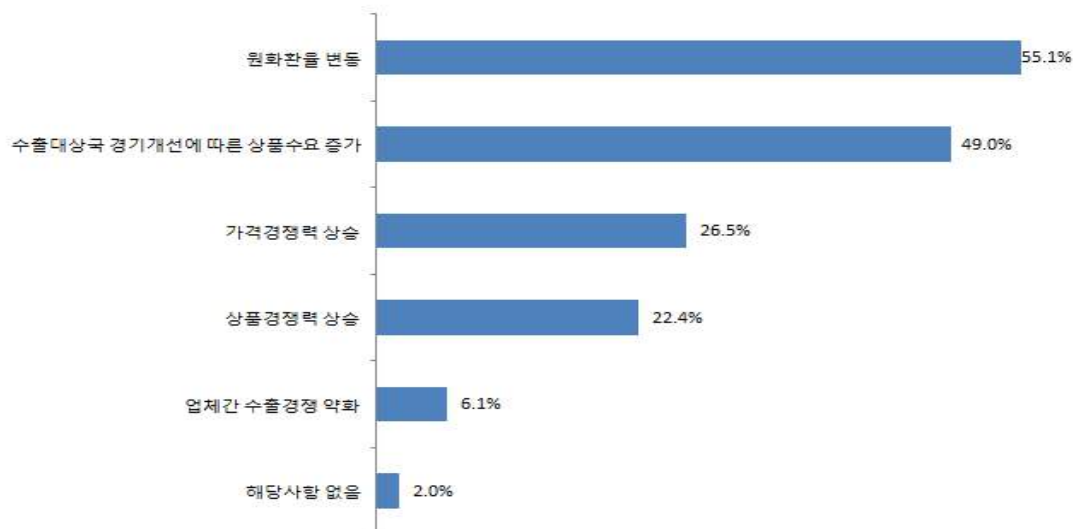
구 분		상품 경쟁력 하 락	가격 경쟁력 하 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 체 간 수출경쟁 심화	원화환율 변 동	기 타
규 모	대 기 업	2.6	30.8	74.4	28.2	12.8	0.0
	중 소 기 업	8.9	13.8	81.3	19.5	17.1	5.7
산 업	전 기 전 자	9.5	14.3	85.7	9.5	11.9	4.8
	기 계 류	3.0	21.2	84.8	18.2	12.1	3.0
	철강·비철금속	6.9	24.1	82.8	24.1	13.8	0.0
	석유정제/화학	7.4	7.4	88.9	11.1	22.2	7.4
	자 동 차	0.0	26.1	73.9	26.1	26.1	4.3
	섬 유 류	0.0	22.2	66.7	55.6	0.0	22.2
	플랜트·해외건설	0.0	27.3	63.6	27.3	27.3	0.0
	선 박	7.1	14.3	100.0	7.1	7.1	0.0
수출 지 역	미 국 ( 북 미 )	2.8	16.7	83.3	25.0	5.6	8.4
	중 국	14.3	17.9	78.6	17.9	10.7	0.0
	일 본	25.0	18.8	81.3	12.5	31.3	6.3
	유 로 존	3.8	26.9	73.1	26.9	11.5	7.6
	동 남 아	6.7	10.0	73.3	10.0	36.7	3.3
	중 남 미	0.0	25.0	100.0	25.0	0.0	0.0

- ☐ 수출업황이 개선된 기업의 경우 개선 요인으로 원화환율 변동(55.1%)과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49.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복수응답)
- 수출업황 개선 기업 중 원화환율 변동을 개선 요인으로 답한 기업의 경우 주요 수출지역이 일본(100.0%), 미국(76.9%), 중국(47.1%) 등으로 나타남.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개선 요인으로

응답한 기업의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58.8%), 미국(46.2%) 등으로 나타나, 두 지역은 산업별 차이에 따라 경기 개선과 악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2016년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업황 개선 기업 수 49, 복수 응답, 단위 : %)



### <기업규모, 산업, 수출지역별 2016년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 개선	업체간 수출경쟁 약화	원화환율 변동	기타
기업 규모						
대 기업	41.7	33.3	41.7	16.7	33.3	0.0
중 소 기업	16.2	24.3	51.4	2.7	62.2	2.7
산업						
석유화학	11.1	27.8	44.4	5.6	61.1	5.6
철강 및 비철금속	0.0	25.0	50.0	25.0	0.0	0.0
전기전자	33.3	16.7	66.7	0.0	75.0	0.0
기계류	37.5	0.0	62.5	12.5	37.5	0.0
자동차	16.7	16.7	50.0	0.0	83.3	0.0
선박	0.0	0.0	50.0	0.0	100.0	0.0
섬유류	20.0	40.0	60.0	0.0	80.0	0.0
플랜트·해외건설	100.0	100.0	0.0	0.0	0.0	0.0
수출지역						
미국 (북미)	15.4	30.8	46.2	0.0	76.9	0.0
중국	11.8	29.4	58.8	5.9	47.1	5.9
일본	0.0	0.0	66.7	0.0	100.0	0.0
유로존	0.0	33.3	66.7	0.0	33.3	0.0
동남아	50.0	16.7	50.0	33.3	16.7	0.0

- 산업별로 원화환율 변동을 주요 개선 요인으로 꼽은 산업은 선박(100.0%), 자동차(83.3%), 섬유류(80.0%), 전기전자(75.0%) 등임.
- 한편,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개선 요인으로 응답한 산업은 전기전자(66.7%), 기계류(62.5%), 섬유류(60.0%), 자동차(50.0%) 등임.

## II. '16년 2분기 수출 전망

### 1. 수출선행지수 추이

#### □ 2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4.3% 하락

- '16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기대비 3.8% 하락,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4.3% 하락 기록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Delta 9.6(15.2/4) \rightarrow \Delta 8.5(3/4) \rightarrow \Delta 7.7(4/4) \rightarrow \Delta 6.1(16.1/4) \rightarrow \Delta 4.3(2/4)$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  $\Delta 5.6(15.2/4) \rightarrow 1.1(3/4) \rightarrow 2.2(4/4) \rightarrow \Delta 3.7(16.1/4) \rightarrow \Delta 3.8(2/4)$

#### <수출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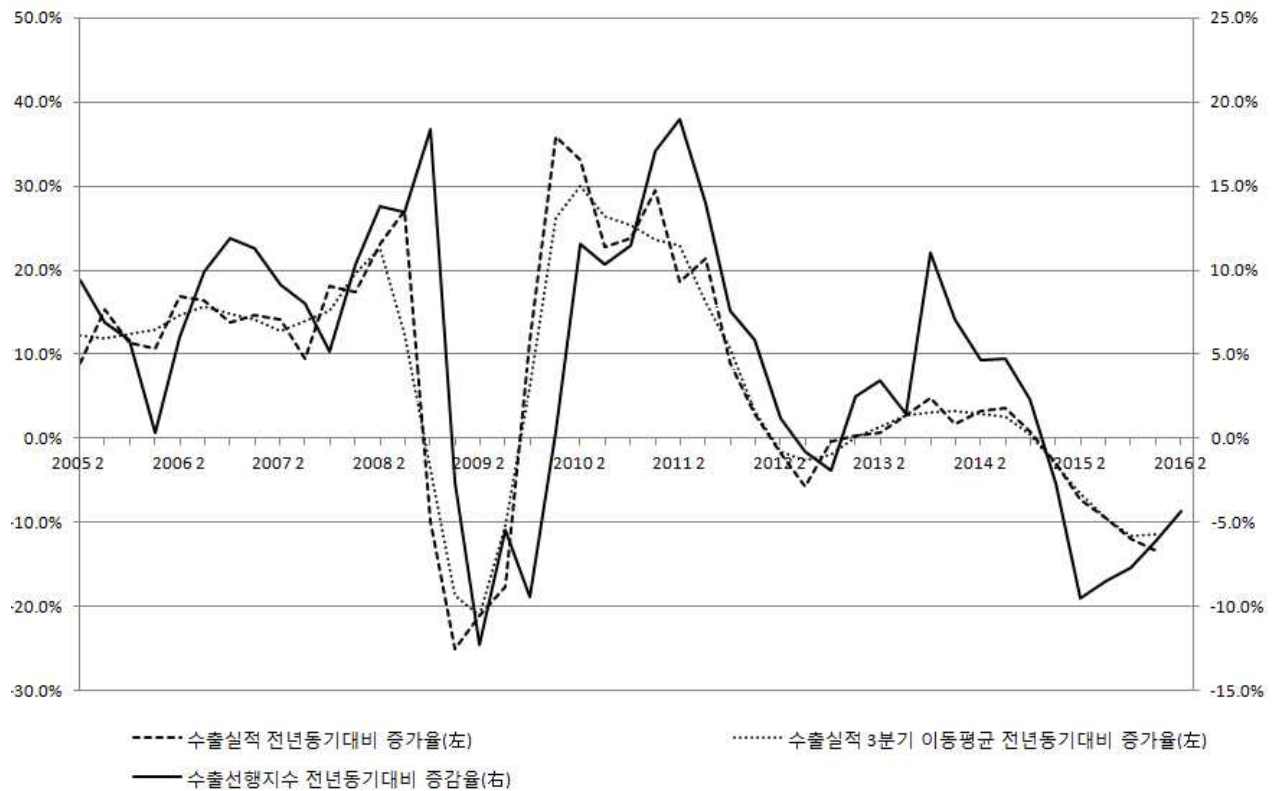
분기별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24.4	126.4	126.2	127.9	121.1	114.3	115.5	118.1	113.7	109.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1%	4.6%	4.8%	2.3%	-2.7%	-9.6%	-8.5%	-7.7%	-6.1%	<b>-4.3%</b>
전기대비 증감률(%)	-0.5%	1.6%	-0.1%	1.3%	-5.4%	-5.6%	1.1%	2.2%	-3.7%	<b>-3.8%</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3.9%	-2.5%	0.1%	-2.5%	-5.0%	-6.9%	1.1%	0.8%	1.6%	<b>1.8%</b>

주1 : 2015년 2분기 이후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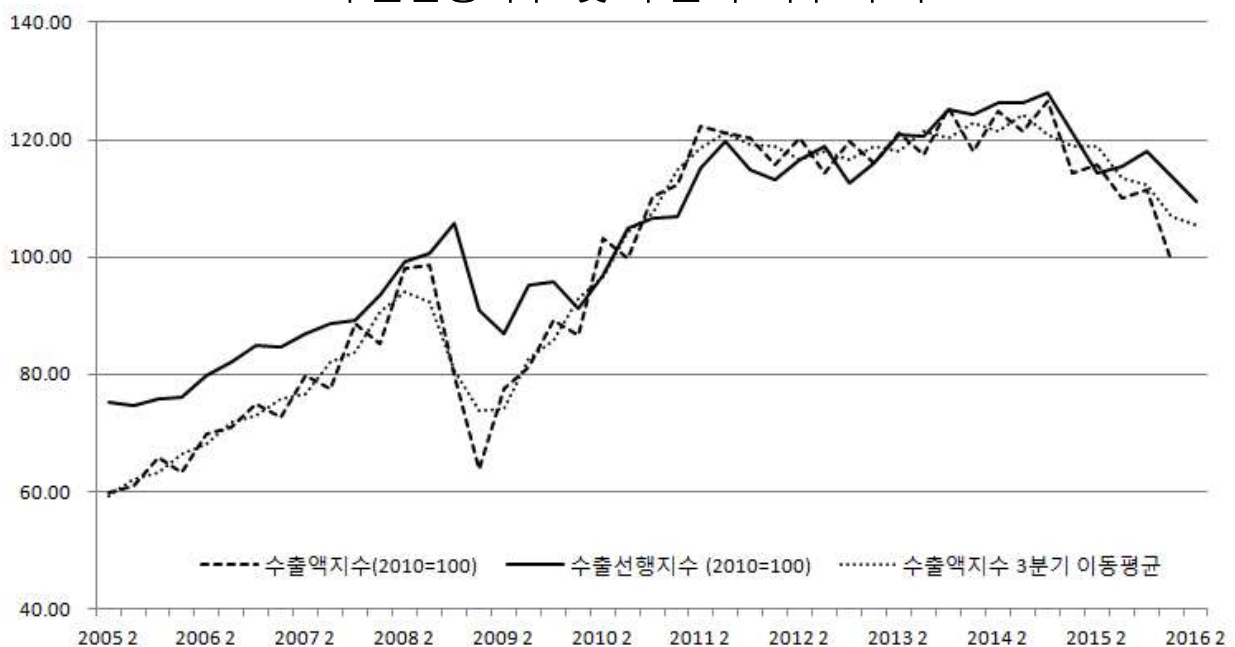
주2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지속해온 수출 선행지수는 전분기에 비해서도 3.8% 하락해 수출 경기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지수 추이>





##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및 수출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 부진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유로존은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브라질은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만 아직 회복력이 높지 않은 상황, 인도 경기는 성장세

※ OECD선행지수: 99.8('15.10월)→99.8(11월)→99.7(12월)→99.7('16.1월)→99.6(2월)

- 수출 둔화 및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9.8%, 전기대비 21.3% 하락

※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지수 (2010=100)

: 85.51('15. 1/4)→ 90.46(2/4)→ 86.52(3/4)→ 76.15(4/4)→ 59.97('16.1/4)

- **가격경쟁력** : 1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해 가격경쟁력은 상승

※ 원/달러환율(평균) : 1,098.7('15.2/4)→ 1,179.3(3/4)→ 1,157.1(4/4)→ 1,200.9('16.1/4)

※ 원화 실질실효환율\* : 112.9('15.2/4)→ 108.1(3/4)→ 110.3(4/4)→ 106.8('16.1/4)

- **실질실효환율\***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우려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질실효환율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했으나,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실질실효환율 :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지표로, 2010년=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통화가치 고평가를, 100 이하면 통화가치 저평가를 나타냄.

- **수출물가** : 유가 안정으로 인한 석유 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가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가격 하락세도 지속

※ 수출물가지수 전월대비 등락률(% , 달러기준)

: △1.6('15.12월)→ △2.1('16.1월) → △0.5(2월) → 0.9(3월)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등락률(% , 달러기준)

: △11.6('15.12월)→ △10.8('16.1월) → △11.6(2월) →△10.5(3월)

- **주요 산업** : 선박, 석유제품, 석유화학의 수출 감소세는 이어지겠으나, 반도체와 자동차는 감소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이며, 무선통신기기는 신제품 수출 증가로 증가세 지속 예상

## □ '16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 하락 전망

- 2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대비 4.3%로 하락하는 등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경기 상승력이 미약해, 전분기 수준과 유사한 전년동기대비 11% 내외 하락 전망
- 다만, 수출선행지수의 전년동기대비 하락률이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진정됨에 따라 전분기(전년동기대비 13.3%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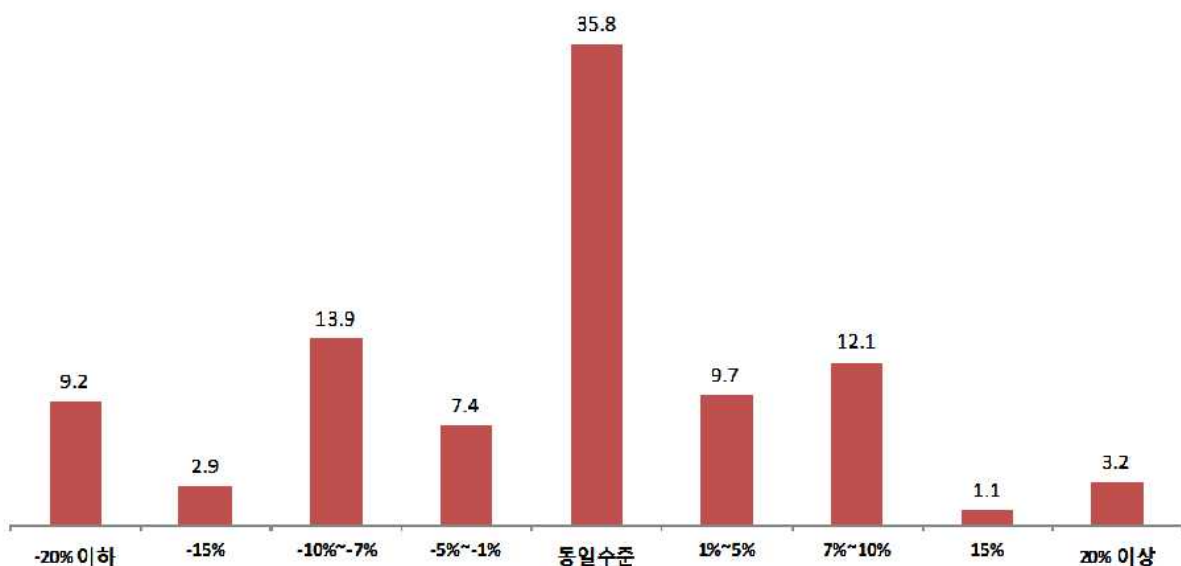
## 2. 수출기업 수출 목표치 전망

### □ 수출기업 '16년 2분기 수출 목표치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

- 수출기업 가운데 33.8%가 '16년 2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6.3%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 <전년동기대비 2016년 2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총 기업 수 453)



- 목표 수출증가율의 분포는 전년동기와 동일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3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년동기대비 5~10% 감소를 전망한 기업이 13.9%, 수출 5~10% 증가를 전망한 기업이 12.1%, 수출 1~5% 증가를 전망한 기업이 9.7% 순
  - 반면,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9.2%로 전 분기 (7.1%)에 비해 비율 증가
- 대기업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년동기대비 평균 1.3% 감소할 것이라 응답해 대기업 수출액 하락 예상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은 '16년 2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8%, 증가 전망 비율은 27.8%
  - 중소기업은 감소 전망 비율이 35.0%, 증가 전망 비율이 25.6%로 대·중소기업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
- 이에 따라 전체 응답 기업의 평균 수출액 목표치는 1.4% 감소할 것으로 집계
- 산업별로는 기계류, 녹색 산업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수출 상승 전망이나 문화콘텐츠, 철강 및 비철금속, 플랜트·해외건설 등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기대비 수출 하락 전망
  - 전체 산업 가운데 문화콘텐츠(-7.5%), 철강 및 비철금속(-5.4%) 산업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
  - 반면, 기계류(1.3%), 녹색(0.2%) 산업 등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증가 전망

<산업별 전년동기대비 2016년 2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단위 %)

구 분	-20% 이하	-15%	-10% ~ -5%	-5% ~ -1%	0%	1% ~ 5%	5% ~ 10%	15%	20% 이상	평균
전 체	9.2	2.9	13.9	7.4	35.8	9.7	12.1	1.1	3.2	-1.4
전 기 전 자	7.2	0.9	17.2	6.4	40.9	7.3	11.8	1.8	3.6	-0.2
기 계 류	7.8	2.9	14.5	7.8	36.9	10.6	9.7	1.0	6.8	1.3
철강 및 비철금속	12.4	4.6	18.5	4.6	32.3	6.2	7.7	0.0	3.1	-5.4
석 유 화 학	10.2	5.0	11.4	10.1	35.0	7.6	15.1	1.3	1.3	-2.2
자 동 차	10.4	2.6	13.0	9.1	28.6	14.3	15.6	1.3	3.9	-1.9
섬 유 류	9.4	0.0	9.4	9.4	37.5	12.5	21.9	0.0	0.0	-0.9
플랜트·해외건설	14.3	5.7	8.6	11.5	37.1	11.4	5.7	0.0	2.9	-4.6
녹 색	4.0	4.0	4.0	0.0	64.0	12.0	8.0	0.0	4.0	0.2
선 박	3.3	0.0	23.3	16.6	26.7	13.3	3.3	3.3	3.3	-1.3
문 화 콘 텐 츠	25.0	0.0	12.5	0.0	12.5	0.0	25.0	0.0	0.0	-7.5
해 운	0.0	0.0	16.7	0.0	66.7	16.7	0.0	0.0	0.0	-0.8

□ 수출지역별로는 중동(-5.5%), 중국(-2.9%), 인도(-2.7%), 유로존(-2.6%)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면, 동유럽(22.5%), 동남아(1.3%) 지역에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출지역별 전년동기대비 2016년 2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단위 %)

구 분	-20% 이하	-15%	-15% ~-5%	-5% ~-1%	0%	1% ~5%	5% ~15%	15%	20% 이상	평균
전 체	9.2	2.9	13.9	7.4	35.8	9.7	12.1	1.1	3.2	-1.4
미 국 ( 북 미 )	6.5	3.3	11.4	10.6	32.0	13.1	18.0	1.6	1.6	-1.3
중 국	12.5	2.1	13.5	6.3	36.5	8.4	7.3	1.0	4.1	-2.9
일 본	7.3	0.0	26.8	4.9	29.3	7.3	17.1	0.0	4.8	-0.2
유 로 존	11.1	1.9	16.7	5.6	33.3	11.1	11.2	1.9	1.9	-2.6
동 남 아	7.9	2.6	11.8	7.9	39.5	10.5	9.2	1.3	3.9	1.3
중 남 미	0.0	9.1	18.2	0.0	54.5	0.0	9.1	0.0	0.0	-2.5
중 동	17.1	10.3	3.4	6.9	44.8	3.4	10.3	0.0	3.4	-5.5
아 프 리 카	60.0	0.0	0.0	0.0	40.0	0.0	0.0	0.0	0.0	-18.0
동 유 럽	0.0	0.0	25.0	0.0	50.0	0.0	0.0	0.0	25.0	22.5
인 도	0.0	0.0	33.3	0.0	33.3	33.3	0.0	0.0	0.0	-2.7
기 타	0.0	0.0	9.1	18.2	36.4	9.1	18.2	0.0	9.1	3.1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1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50.6%),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41.3%) 및 원화환율 불안정(37.5%)이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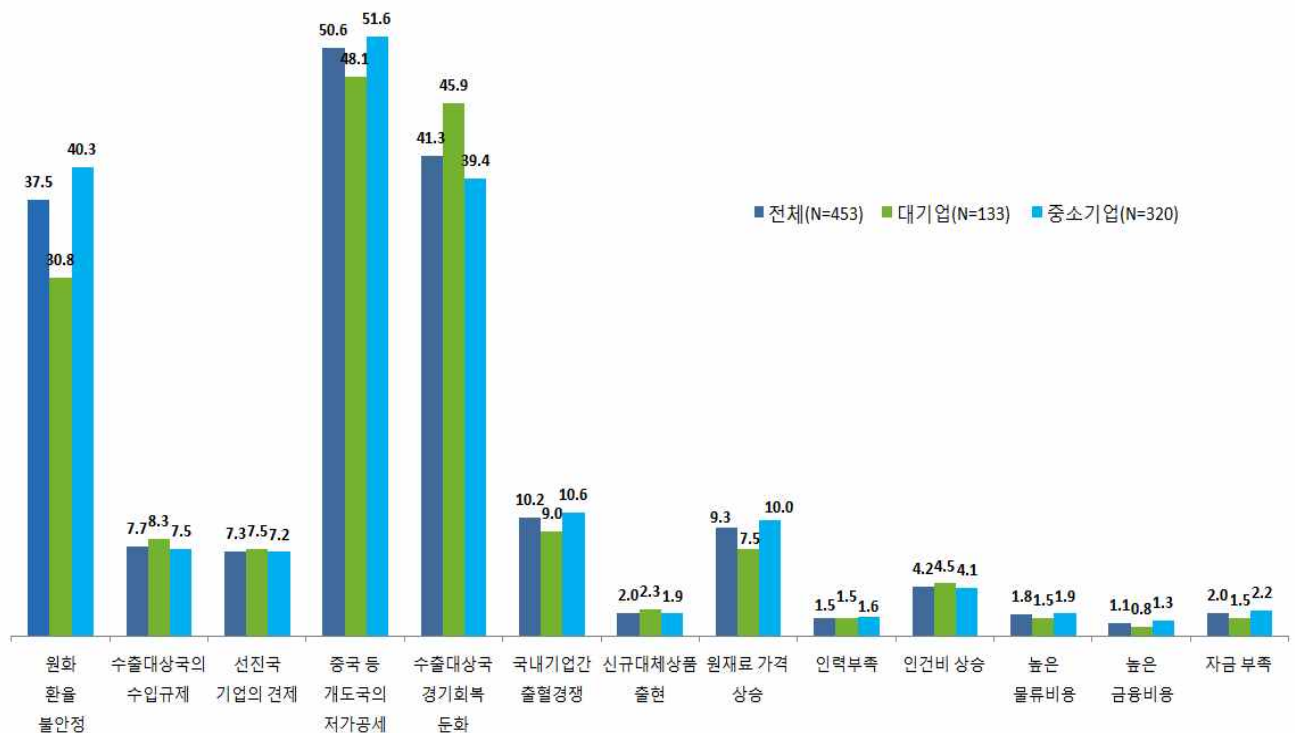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35.3% → 37.5%)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의 비중은 전기보다 증가

-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55.8% → 50.6%), 원화환율 불안정(44.8% → 37.5%)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 비중은 전기대비 감소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및 원화환율 불안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각각 51.6%, 40.3%)이 대기업(48.1%, 30.8%)보다 많이 응답
- 반면,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에 대해서는 대기업(45.9%)이 중소기업(39.4%)에 비해 더 많이 응답

### <2016년 1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1순위+2순위)



- 산업별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자원개발(100.0%), 선박(60.0%), 전기전자(60.0%) 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 불안정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49.4%), 철강 및 비철금속(41.5%), 기계류(37.9%) 등에서 높음.
-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둔화는 플랜트·해외건설(54.3%), 선박(53.3%) 등의 산업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콘텐츠(25.0%) 산업은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또한 애로사항으로 높게 응답

<산업별 2016년 1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1순위 + 2순위)

구분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선박	섬유류	플랜트·해외건설	녹색	자원개발	문화콘텐츠	해운
원화환율 불안정	32.5	41.5	37.3	37.9	49.4	33.3	31.3	31.4	40.0	0.0	25.0	33.3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8.8	9.2	6.4	5.8	2.6	0.0	9.4	11.4	12.0	0.0	12.5	0.0
선진국 기업의 견제	5.0	4.6	9.1	5.8	9.1	3.3	9.4	5.7	8.0	0.0	0.0	16.7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56.3	50.8	60.0	57.3	45.5	60.0	34.4	42.9	44.0	100.0	25.0	50.0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	46.3	41.5	36.4	35.9	41.6	53.3	46.9	54.3	36.0	50.0	12.5	50.0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8.8	13.8	9.1	8.7	10.4	10.0	12.5	17.1	8.0	0.0	25.0	0.0
신규대체상품 출현	1.3	3.1	1.8	1.0	1.3	0.0	3.1	2.9	4.0	0.0	12.5	0.0
원재료 가격 상승	8.8	7.7	5.5	9.7	15.6	10.0	12.5	0.0	20.0	0.0	0.0	0.0
인력 부족	2.5	0.0	3.6	1.0	1.3	0.0	0.0	2.9	0.0	0.0	0.0	0.0
인건비 상승	3.8	0.0	3.6	5.8	3.9	3.3	15.6	0.0	8.0	0.0	0.0	0.0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0.0	0.0	0.0	1.0	0.0	0.0	0.0	5.7	4.0	0.0	0.0	0.0
높은 물류비용	3.8	0.0	0.0	2.9	1.3	0.0	3.1	0.0	4.0	0.0	0.0	0.0
높은 금융비용	0.0	0.0	0.9	1.0	0.0	0.0	3.1	5.7	4.0	0.0	0.0	16.7
자금 부족	1.3	1.5	1.8	1.9	0.0	6.7	3.1	2.9	0.0	0.0	12.5	0.0

##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 1. 설문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평가 : 조사 해당 분기
  - 실적전망 : 조사 다음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16년 3월 7일~11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 크기 : 대·중소기업 453개 업체  
(대기업 133개, 중소기업 320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3.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 모형 개편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5년 2분기 이후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개편 보완

□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 OECD,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수출가격 변수	· 실질실효환율
산업별 수주현황	·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 · 반도체 : North America Capital Equipment Book-to-Bill Ratio(SEMI) · 선박 : 해외수요 선박수주액 · 기계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